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2월 22일 (금)
(윤력 11월 10일)
Пятница
22 декабря 2023 г.
№ 49 (1206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22일 러시아에서 에너지 분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사할린 전기발전소 (일리인스코예마을). (사할린주정부 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제 8차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홍보운동 시작

전국적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 날짜가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발표된 후 사할린주에서도 주민들의 시민활동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사할린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러시아 대통령 선거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행사의 확정된 계획표에 따라 후보자 선출 단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자체 지명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12월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정당이 내세운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후보자 선출이 계속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현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만이 선거에 출마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에서 정보 포스터와 플랜카드가 생기고, 이런 홍보자료들이 사할린주 전 지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홍보자료들의 목적은 다가오는 선거를 주민에게 상기시키고, 선거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거에 어떤 새로운 도입방식이 선거과정에서 생기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먼저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2024년 3월에 3일간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사할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 참가 문제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러·중 정부 간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남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과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러·중 위원회의 위원장 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됐다. 러시아 측에서는 극동 지역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대표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는 국무원 장궈칭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러·중 간 제 28차 정부 정상 간의 정기회의에 앞서 성사된 만남은 특히 중요하다. 세계는 신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특수군 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발전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수천 가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의 시도는 완전 효력이 없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통 대담에서 국내 총생산은 연말까지 3.5% 성장했으며, 2024년에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군작전을 전개하며 우리는 국가의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러시아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감스럽게도 서방 입장의 압력으로 이러한 절차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으로 국가 간의 신뢰가 상실되고, 경제적, 문화

적, 인도적 교류의 파괴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류의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한다. 러시아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오랜 시간 검증된 우호관계의 보전과 발전은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안정시키는 글로벌 축의 하나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며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가 만남에 앞서 모두발언을 했다.

중국의 장궈칭 부총리는 "올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두 차례 회담이 있었다. 우리 두 국가 간 정상들의 전략적 통솔로 양국 간 상호 동반자적 관계는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적 상호 신뢰도 향상되고 있으며, 우리의 무역 및 경제관계는 공고히 강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양국 정상 간 회의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 간 수장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러 실무 협력의 심화는 쌍방을 넘어 사실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올해 중·러 간 경제협력은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빠른 궤도에서 발전하고 있다.

(3면에 계속)

단신

'통합 러시아'당, 새 임기에 푸틴 현직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지지

'에지나야 러시아(통합 러시아)' 당이 대선 후보로 무소속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대형 정당의 이런 결정은 '러시아' 전시·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대표단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단결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향후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요청과 국민의 걱정하는 문제에 응답하고, 1차 보건개발, 건설, 대중 스포츠와 기타 제반시설 개선 방안을 선거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제와 향후 전체적인 계획들은 우리가 함께 결정할 것이며, 다시 말하건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요구와 의견에 따라 이 일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합 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의 수장으로 누가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없으며, 그의 뒤에는 역사적 진실과 정의와 다수의 지지가 있다. 2024년 3월에 우리 당은 현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 두말할 것 없이 승리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노동부 장관, 사할린 주민에게 상 수여

근로 분야에 제 2차 전국 직업장인 경연(우수 경력 컨설턴트) 부문에서 사할린의 안톤 마모노프가 2위를 차지했다. 그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출전한 17명의 경력이 높은 상당자들을 제치고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개발부 안톤 코차코프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올해 경연은 대규모로 치러졌다. 이번 경연에는 전국 66개 행정자치 지역들에서 경쟁자들이 참가했다. 향후 전문적 경쟁의 지형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노동부 장관이 말했다. 안톤 마모노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인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직업 진로상담을 하며, 이력서 작성을 돕고, 면접 시 응시를 도우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받도록 돕는다.

사할린주, 학생들 가운데 독감과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 증가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할린주에 독감과 급성호흡기질환에 3,362명이 등록된 가운데 전주대비 감염률은 3.7% 낮아졌다. 소비자보호감독청에 따르면 7세-14 연령층과 15세 이상 성인 연령층에서는 감염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12월 11일 - 17일 지역 내 폐렴 감염률도 전주대비 낮아졌고, 사할린 지역에서는 62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38.9%가 아동이다. 신종 코로나19 환자는 121명이 확진되었고, 그중 23명이 미성년이며, 한 주간 감염률은 낮아졌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곧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곧 마무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이준영 박사: "사할린 한인사의 역사적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배순신 본사 기자는 한양대학교 연구원인 이준영 박사와 한국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이준영 박사(37세)는 사할린 한인도 잘 모르는 사할린한인사를 연구하고 있다.

-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19년에 한양대학교에서 일본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와 홋카이도대학교 관광학도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주제로는 사할린한인사와 한일근대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할린한인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 대학원 석사 시절에 근대 한일 관계사를 전공하면서 지도교수님과 안산 고향마을과 대한적십자사에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할린한인의 존재가 각인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할린한인의 존재와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안산시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할린한인사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제게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사과정 동안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러시아 지역학과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일본학 분야에서는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작성된 다양한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할린한인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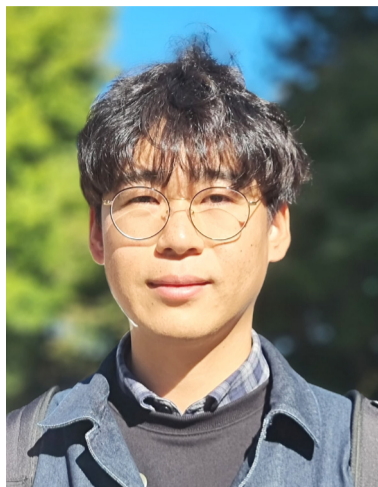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

고 계시는지요?

- 저는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사를 포함하여 보다 역동적인 사할린한인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통치하기 시작했던 무렵에도 사할린의 한인은 러시아인뿐 아니라 아이누와 같은 선주민이나 일본인 등 민족들과 교류를 하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인들은 탄광 노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인의 사할린 정착을 위한 농장 조성, 요리점 운영과 같은 경제활동을 했고, 조선 독립운동이나 언론 및 정치활동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회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극동지역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역사 기억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의 역동적인 역사를 조명하고, 그들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인이주사뿐 아니라 사할린과 한반도 사이에 오고 간 다양한 물자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스미토모재단과 타바코종합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생산된 '조선소주'가 사할린에 유입된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할린한인사에 더욱 풍부한 역사적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뿐 아니라 '물건' 또한 사할린과 한반도를 관계 짓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임하고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 박사님을 온라인으로 처음 뵈는 적이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2021년 4월에 사할린에서 잘 알려진 KIN단체에서 개최된 '사할린



린 월레포럼'의 일환으로 '일제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정착촌의 형성'이란 주제로 발표하셨는데 재미있는 사실들을 얘기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KIN 단체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 2020년에 외교부에서 주최한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공모전에 참여하여, 학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할린 동북아 평화교류 콘텐츠>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 지역의 잠재적 평화와 갈등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할린 역사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KIN 단체가 사할린 관광을 여러 차례 시도한 사례를 조사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KIN 단체의 사무국장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제가 진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이어지는 '사할린 월레포럼'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월레포럼'에는 사할린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제 연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석해 주셨기에 매우 의미있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할린 지역의 역사적인 당사자들과의 소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 작년 11월에 한국 역사극 전문 채널 CNTV가 개국 20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더 늦기 전에>를 제작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이예식 기자님도 출연하셨고 박사님도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 <더 늦기 전에>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나 자신이 사할린 한인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여행하며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색다른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큐멘터리에 이예식 기자님이 함께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평소 이예식 기자님의 작품을 통해 사할린한인의 생활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오면서, 저도 언젠가는 나만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아직 기자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에서 사할린한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다큐멘터리의 취재 및 출연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사할린한인과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 사할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할린에 오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을 빈번하게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에서 분석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할린한인사 연구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사할린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이나 일본 정부지원으로 사할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코

로나19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화태일일신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항공편이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조만간 꼭 사할린을 직접 방문하고 사할린한인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할린한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에서의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 사할린한인사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발전해온 분야입니다. 선배 연구자들의 성과와 노고 덕분에 제가 신진연구자로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할린한인사를 밝힘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학 연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할린한인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할린한인사의 역사적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사의 복잡한 역사적 경로와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이루고자 희망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할린한인과 그들의 역사를 존중하며 동시에 미래의 평화를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연구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에서 수상의 자리에 올라

2달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국제 전시포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식지 않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들이 자체 전시하는 75호 전시관은 특히 관심을 끌었다. 약 200만 명이 전시회를 방문한 가운데 상당수가 처음이 아니었다.

최근에 이번 지역 박람회의 경연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할린주는 몇 개 수상 부문에서 상위 그룹에 들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수상 부문은 <우수 사회적 기획> 부문과 <우수 관광 기획> 부문에서 3위 차지, <최고의 독창성> 부문과 <최고의 유익성>, <진보와 혁신> 부문에서 4위, <자연 보호> 부문, <아동을 위한 최선> 부문의 <우수 디지털체계>, <우수 가상현실 관광> 부문에서 5위를 차지했다.

사할린 전시관은 사회경제 분야의 성과를 비롯해 섬들의 투자 잠재력, 전망 높은 회사들에서 성공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가장 흥미로운 명소들을 소개했다.

배 모양으로 장식된 사할린주 전시관에서는 핵심 기업들과 관광코스, 지역의 별미에 대해 설명했다. 돛 화면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석유·가스 및 수산업체들, 천연액화가스 공장,

극동의 통합 항공사 '오로라' 항공기를 묘사했다.

전람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청년들을 유치해 즉시 자리에서 관람객들에게 사할린 지역들에서 사회적 진출의 상승 기회에 대해 알려주며,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사할린과 쿠릴 방문에 따른 종합적 제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들에게 보조금 혜택, 의료, 교육, 고용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12월 새해 전람회의 주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당신의 눈부신 겨울>이다. 특별히 잘 알려진 북방 소수민족의 민속놀이인 목표점에 올라미 던지기를 하며, 겨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류쉬카(빙어)를 잡아라' 디지털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은 11월 4일 국민단결의 날에 개막되어 내년 4월 2일 우주 비행의 날까지 모스크바 전 러시아 박람회장 국민경제성과 전시 구역에서 계속 이어진다. 푸틴 대통령이 행사 진행에 대한 법령에 서명한 가운데 목적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지역들의 중요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на ВДНХ

Уже второй месяц не утихает интерес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форуму «Россия» на ВДНХ, и особенно 75-му павильону, где свои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или вс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ку, много и тех, кто приходит не в первый

раз. На днях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региональных экспозиций.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группу лидеров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минациях,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 3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и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Лучш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 4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ях «Самая оригинальная», «Самая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есс и инновации»;
 - 5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ях «Забота о природе», «Лучшая для детей»; «Лучший интерактив», «Лучший виртуальный тур».

Сахалинская экспозиция познакомила посетителей с достижениями в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островов,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успешной карьеры в перспективных компаниях и самыми интересным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авиль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олненный в форме корабля,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ключе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туризме, местных деликатесах. На экране-парусе демонстрируются красоты природы, нефтегазовые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вод СПГ, самолеты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Одна из значимых целей экспозиции — привлечь молодежь, поэтому прямо на месте гости могут узнать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на островах. Здесь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получают комплекс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 переезду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м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субсидиях, медицине, образован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8면에 계속)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사할린 도착**"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사할린 도착**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4'가 사할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으며, 올해는 댓글 응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3,236명이 참여했고, 총 1천688부를 제작하였다. 사할린 현지에는 벽걸이(1,120), 탁상용(485) 총 1,605부를 보내 지난 12월 20일경 현지 동포들에게 전달되었다. 올해는 기업 후원이 줄어 국내 영주귀국 동포들 전 세대에 배포하진 못하고 지역 회장과 복지관에 보냈다. 제작과 운송에 필요한 재정은 온라

인 모금액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의 지원과 KIN 자부담으로 충당되었다.

KIN은 2024년 사할린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사할린 방문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직항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동포사회에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던 만큼 현지의 의견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방문을 결정했다. 사할린 한인협회와 함께 지역동포들에게 달력 배송을 할 예정이다며, 2024년 창간 75주년이 되는 새고려신문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이주 160주년이 되는 2024년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수된 편지**코르사코브 노인정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에 대해 짧은 글을 씁니다.

우리 노인정은 한인회 부회장 박창순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조옥순 씨, 윤태순 씨, 김리자 씨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평일에 모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회장 박순옥)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경내과 의사들이 진찰해 약 처방도 받고, 청년회 회원들은 노인들을 위해 각종 게임, 운동,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건강검진이 끝난 후, 우리는 박순옥 씨가 가져온 여러 음식과 반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물도 받았습니

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11월 4일 국민단결의 날에도 모이고, 노래 '카츄샤'를 비롯해 여러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짓날에도 모이기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이유로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코르사코브 1세 노인회 일동
(사진: 코르사코브 한인회 제공)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러·중 정부 간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남****(1면의 계속)**

이는 중·러 간 무역 및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으며, 투자 협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대규모 투자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 극동지역에서 러·중 상호협력 강화가 논의됐다. 대부분의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고정자본에 투자, 산업생산 증가, 주택 건설, 석탄 채취, 금 생산, 농산물 제품들도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이다. 극동지역들과 중국의 동북지역들 간 교역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역은 2배로 증가했고, 2022년에 교역액은 220억 달러에 달했다. 2023년에는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극동지역에는 선도개발지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러시아 연방 북극지대, 쿠릴열도의 특별 혜택 등 효율적인 국가 지원 정책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외국 자본의 유치로 시행되는 포트폴리오 기획에 상당 부분을 중국의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는 특별제도 속에 중국 자본의 참여로 총 투자액이 90억 달러에 달하는 49개의 투자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기술설비이고, 복합적인 계약을 수행하며, 시설에 따른 시운전에 참가하고 있다."고 러시아 부총리가 말했다.

국제적인 선도개발지구 조성은 협력 확대의 기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중국 측과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조건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블라고웨스츠크와 헤이허 시 및 니즈네레닌스코예와 통장 시간 교량 운영을 포함한 물류 제반시설 구축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올해 11개월 동안 이 교량을 통해 32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다. 그리고 북극항로개발의 일환으로 상호작용의 전망을 평가했다.

중국의 운송업체들은 국제 운송 통로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 '뉴뉴 쉬핑 라인(New New Shipping Line)회사는 중국에서 무르만스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까지 8편의 선박을 운항했다.

관광산업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특별 관심을 기울인 가운데 극동의 도시들(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울란우데, 야쿠츠크)에서 중화인민공화국까지의 직항 노선이 재개되었다. 중국 국민의 러시아 연방으로 단체여행을 위한 무비자정책이 2023년 8월 1일부터 재개된 것은 특히 중요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3만7천 명 중 80%가 극동지역을 선택했다. 정부 간 위원회 정기회의를 논의하며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에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의를 했고, 이날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극동지역의 투자계획 실행에 관심을 가진 중국의 기업들과 만남을 가지며, 산업 및 에너지, 농산업과 물류 분야의 상호협력을 논의했다.

2023년 문예 콩쿠르 장려상**언어는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다**

한 풀리나, 18세, 사할린국립대학교

언어는 다른 사람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국적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새로운 기회와 발견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러시아어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국어를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한국어로 서로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항상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할머니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몇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우리는 종종 함께 놀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여행 이후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직접 공부하려 한 게 아니라 엄마의 추천으로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가서 무료수업을 들었습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우리는 언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한국의 문화와 그 특징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종종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열었고, 그것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해마다 점점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대학에 진학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저와 같은 흥미와 목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는 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가 제공한 기회 덕분에 저는결국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 주로 한국 발전의 역사와 그들의 가족적 가치가 저에게는 큰 매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로 이주하는 대부분이 키르기스인과 타지키스탄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2월18일을 세계 이민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민은 언제나 전 세계 공동체의 삶의 일부였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해 왔다. 기후변동,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요소들, 불안정성, 사회적 불평등 증가, 노동시장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요구 등, 이 모든 것이 이주가 계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 통계청이 디지털 이주민통계를 작성했다.

2022년 한 해 사할린주에는 CIS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 5,700명과 다른 국가에서 온 400명을 포함해 외국인 6,100명이 체류했다. 러시아를 떠난 사람은 8,300명으로 그중 CIS 국가 출신이 7,200명, 다른 국가 출신은 1,100명이다. 사할린과 쿠릴로 이주한 사람들의 출신국가 중 상위 3개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3,800명, 타지키스탄에서 500명, 아르메니아에서 400명이다.

취업과 관련된 14세 이상 국제 이민자의 거주지 변경의 필요성이 주요 요인으로서 89%에 달하며, 개인적, 가족적 요인이 10%, 교육적 요인이 1%로 집계됐다. 사할린주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외국인은 남성이 67%, 여성이 33%로 나타났다.

국제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층에 속하는데 고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5%, 무역 및 서비스, 국민 및 재산보호 서비스 분야 직원 24%, 산업, 건축, 운송과 관련 사업에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24%, 비숙련 근로자가 40%이다. 교육 수준으로는 외국인 27%가 중등 전문교육을 받았고, 36%는 일반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9%가 고등교육을 받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과학자 1명이 사할린주에 체류하고 있다.

14세 이상 성인의 혼인관계로는 55%가 혼인했으며, 21%는 혼인 여부를 알 수 없고, 21%는 미혼이며, 3%가 이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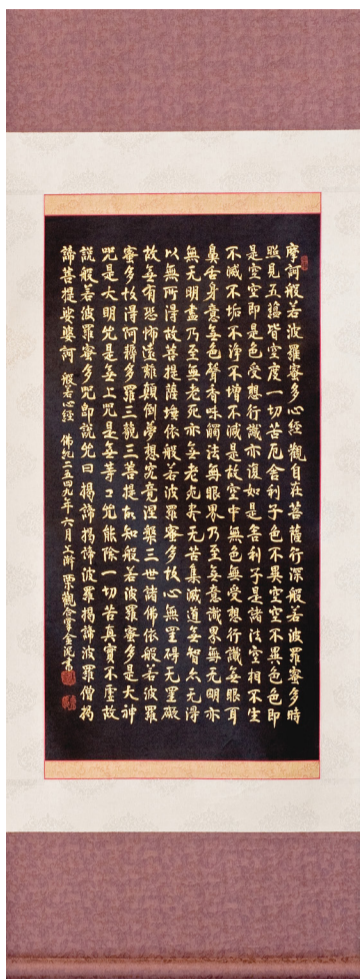
예비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9개월간 사할린과 쿠릴에 체류한 외국인은 4,400명이고, 떠난 외국인은 4,700명이다. CIS 국가들에서 사할린으로 4,300명이 이주했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100명이 이주했으며, 사할린 지역을 떠난 사람은 CIS 국가 이주민 4,400명과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 300명이다. 따라서 국제 이주민 감소는 300명이며, 그중 CIS 국가들 출신이 100명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Искусство каллиграфии сое

Мастер каллиграфии Бён Чхан Хон свободно и виртуозно работает в разных формах: создает свитки, вертикальные и горизонтальные, иногда синтезирует каллиграфию и монохромную живопись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бамбука и орхидеи, работает в малых формах /складные веера/, создает ширмы. Особое место в творчестве Юльгвана занимают работы с текстами из буддийских канонических периода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илла (VII-X) и Корё (X-XIV), требующие от мастера особой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настроения. Практика переписывания буддийских сутр золотой пастой на плотной бумаге в Корее существовала издавна, с момент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вященного учения на полуострове IV в./ Для подобных работ в Корее периода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спользовали специальную черную бумагу плотной текстуры, на которых изображали буддийских святых и писали священные тексты золотой пудрой, немного разбавленной натуральной смолой лакового дерева отнаму. Контраст золота на чёрном придавал произведениям строгую торжественную возвышенность и праздничность. Старая буддийская вера в то, что перепиской священных писаний достигается долголетие, исцеление от болезней и спасение души, для Бёна 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ю сохранить добрую традицию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елигии предков. Сила веры Бёна в людей не иссякает, поэтому, созданные им золотые сутры на свитках, словно излучают сакральные лучи «света Будды», проникая в душу современника.



Бён Чхан Хон (1930-2010) *Нисходящий с вершины в мой мир рай / «Панасимгён» - «Сутра Бодхисатвы».* 2003 г. Бумага черная, золотая пудра. 67x34; 126,5x44,5 Поступление: с выставки «Искусство письма» (СОХМ); 2009 г. КП-8647 Г/в-3639

Первоисточником для работы из музейной коллекции «Нисходящий с вершины в мой мир рай» послужила «Сутра Бодхисатвы» («Панасимгён»). Упорядоченность и ритмичнос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троя буддийского текста, состоящая из 264 знаков, сродни силе внутренней нравственной установки личности автора.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Причины неожиданного бума на бумажные календари

Сеул, 17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С приближением Нового года бесплатные календари, выпускаемые 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банкам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банки сокращают количество выпускаемых бумажных календарей, спрос остается неизменным: люди спешат в банки, как только они открываются, а календари затем продаются с выгодой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им наблюдениям на вторичном онлайн-рынке, настенные и настольные календари от коммерческих банков продаются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атформах, цены на которые обычно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в пределах 10 000 вон (7,59 доллара США). Календари, на которых в качестве моделей изображены знаменитости ил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особенно выдающийся дизайн, продаются по еще более высокому ценнику.

«Обычно я пользуюсь цифровым банкингом, поэтому мне редко приходится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банковского прилавка. Было странно стоять в очереди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просить календарь. Поэтому я решила посетить банк прямо во время открытия», — написала женщина, живущая в Гояне, провинция Кенгидо, в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Южной Корее банки традиционно ежегодно предлагают своим клиентам бесплатные календари. Эти календари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отчасти из-за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го убеждения, что наличие банковского календаря в доме может принести финансов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семье. Они особенно популярны среди пожилых клиентов, которые ценят крупный шрифт и просторный дизайн календарей. Однако производство календарей банками сокращается. Совокупный выпуск календарей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ятью крупными коммерческими банками — Hana, KB Kookmin, NH NongHyup, Shinhan и Woori —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6,35 миллиона, что на 19 процентов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 годом.

Поскольку продавцы подержанных вещей становятся проблемой для банков, многие банки внедрили превентивные методы, такие ка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только одного календаря на клиента и требование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и бесплатных календарей.

Лекция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атальи Потаповой прошла на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Проект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направлен на выяснение фактов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которые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Главная тем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проблема денежных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очтовом банке Карафуту, которые Япония не выплатила до сих пор.

15 декабря состоялось пят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екта. На этот раз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слуша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а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талья Потапова. Ее доклад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пыт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енных и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действий государств лиц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был посвящен событиям, происходившим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Европе. Тем не менее, научный анализ того, как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шие по вине государства-агрессор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ц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разрешались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в дальнейшей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Наталья Потапова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а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в разрешении этих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об учрежд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в рамках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Эти структуры – в основном агентства, занимающиеся проблемами людей,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енных в период войн и катаклизмов. Они действуют на осно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легитимности 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о все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овлеченными в какой-либо конфликт.

Интересное наблюд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во время развернувшейся после лекции дискуссии.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насущных и важных проблем, когда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не действует, 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х происходят военные или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или огранич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существует та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ак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ериод войны или катаклизма завершен, Красный Крест уступает место другим средствам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ереговор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организация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на площадке ООН. Между тем, к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фициально не обращалис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труктуры, а государств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влеченные в эти проблемы, не хотят или избегают раз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До сих пор только Красный Крест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репатриации, ограничения прав, медицинским и бытовы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некотор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прошло уже почти 80 лет, а все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е могу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ладают полной правосубъектностью и суверенитетом. Дискуссия был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 и должна привести к позитив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На следующей лекции Виктора Щеглова мы будем обсуждать репатриацию и компенсации в Германии и Израил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их опы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иктор Щеглов – признан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Лекция состоится 12 января 2024 г. в 15:00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роводится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модератор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тог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под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был запущен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15 декабря 2023 г.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собрались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чтобы подвести итоги 7-ми месяцев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и определить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Участники итогового семинара отметили несомненную ценность проекта,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родолж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ОУ Гимнази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ОУ СОШ №2 г. Корсаков, МАОУ СОШ №4, г. Корсаков, МБУ ДО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БУ 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Анива, МБОУ 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ыль»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пр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ультурный Сахалин» г. Анива, МАДОУ № 9 «Чебурашк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СМСОО «Клуб Торнадо», РОСО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та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освещении проекта оказывает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 итоговой встреч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ы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и партнеры Проекта в 2024 году: МАОУ Лицей 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ОУ СОШ № 22, отдел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и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АНО «Центр чтения», МАОУ Гимназия № 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Вселенная возможностей» реализуем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нцевальная студия Flowmotion, театральная студ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дея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была озвуче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 мае 2023 г.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семинар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го стали уч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и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хэквондо и ссир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еминара –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редполагает обмен опытом, определение новых задач, наце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росс-культур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в регионе, развитие гармоничных межличностных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основы формирования гармонично развитой личности. Проект помогает откры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а пути к новым знания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должает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одолжает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17 декабря он назначил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Ан Док Кына,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вля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траны на торговых переговорах. Пан Мун Гю, который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всего лишь три месяца, как ожидаетс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апре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Ан Док Кын является экспертом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обладает обширными теоретическими и практическими знаниями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От него ожидают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жив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и активизации экспорт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менит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директо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Нынешний глава МИД Пак Чи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а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и два е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одали в отставку в конце ноября из-за кадровых разногласий.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эт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рше 15 лет,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более трёх месяцев, составило 1 млн 43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9,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18 дека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особенно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растёт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с рабочей визой E-9 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Между тем, количество обладателей рабочей визы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H-2 сократилось на 10 тысяч, а брачной визы - на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ил 64,5%, что на 0,3%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то касается условий жизни иностранцев, то лишь 15,2% из них имеют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ьё, 59,2% арендуют квартиры, а 25,6% проживают в бесплатных общежитиях и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под жильё помещениях. Самое большо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работают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ства - 412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торговля, ресторанный и гостиничный бизнес,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и частный бизнес.

В Пусан прибыла американская АПЛ Missouri

Американская атомная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АПЛ) Missouri прибыла 17 декабря в порт Пусан. Как сообщили в штабе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РК, прибытие лодки позволи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обме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укрепить совместную оборону. Это третий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аход американской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В июле на базе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РК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побывала АПЛ Annapolis, котора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ых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МС противолодочных учениях. В ноябре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побывала американская АПЛ Santa Fe.

В РК закрывают пункты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с 1 январ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закрыть бесплатные пункты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ах в рамках новых мер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ные инфекц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работают 506 таких пункт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людей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решение об их закрытии принято из-за снижения спроса на тест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рмализо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ов. Между тем,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сохранена на уровне «осторожность» из-за опасений роста числа инфекций. Бесплатные пункты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работали с 20 января 2020 года.

В РК выявлено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нелегалов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К было выявлено 38 тысяч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незаконно. Это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сю историю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сообщили 14 дека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о имеющимся данны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тране находится 426 тысяч нелегалов. По итогам трёх рейдов, проведенных с октября, были задержаны 7.225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незаконно. 6.532 из них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Оштрафованы 1.653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мпаний, принявших на работу нелегалов. Выявлен 21 брокер, оказывавший нелегалам содействие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8.800 человек, изъявивших желание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были освобождены от штрафов и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Срок действия «зелёного коридора», то есть периода,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нелегалы могут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добровольно, продлён до конца февра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RKI

В Сеуле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В четверг и пятницу в Сеуле одно за другим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укреплен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Четырнадцатого декабря состоялся 8-й "Русский вечер",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деловой совет и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 случаю 33-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Ф и РК,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Сегодня,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ую гео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ловых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и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занимающиеся практиче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двусторонне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храняют настрой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Россией, продолжают успешно трудиться н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ниве", - заяви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алерий Гуенков.

Дипломат констатировал, что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замет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ись двусторонние контакты по лин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ашем обоюдном настрое на сохранение и преумножение наработанного за десятилетия позитива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 отметил Гуенков.

О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 недавнее высказыв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бращенное к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Москва готова к тому, чтобы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Сеуле

верну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траектор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для наши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о удастся ли это сделать, зависит и от Сеул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стоялись концерты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их самбистов, а также праздничный ужин. Обе встречи собрал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Так, на "Русском вечер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около двухсот человек, 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 честь 33-летней годовщины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я - около пятисо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пособна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в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знала запущенную КНДР ракету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В понедельник утр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В Сеул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доступные данные, считают, ч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была испытан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МБР) "Хвасон-18", способная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в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в ответ пообещала Пхеньяну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ША и Японией, чтобы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угрозу".

"Сегодня в 8 часов 24 минуты утра из окрестностей Пхеньяна нами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запуск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торону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Ракет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по завышенной траектории и упала в морские воды примерно через 1000 км от места старта", - заявил 18 декабря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ъедин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НШ ВС Р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иных данных, но более информативной была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Токи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БР упала в воду 9 часов 37 минут утра за пределами эксклюзив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Япон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ракета летала более часа - 73 минуты. Японцы высказ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ракета поднялась на высоту более 6000 км.

В этой связи в Южной Корее, исходя из имеющихся сведений,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склоняются к версии о том, что КНДР запустила твердотопливную МБР "Хвасон-18", которую в этом году испытывала уже два раза. Путем простых подсчетов специалисты установили, что в случае запуска ракеты данного типа не по завышенной, а по нормальной, оптимальной для дальности полета траектории под углом в 30-45 градусов, МБР КНДР улетела бы на расстояние 12-15 тысяч км или даже дальш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испытала МБР, которая может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В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клонились от окончательных выводов, сказав лишь, что "ведут анализ имеющихся сведений", пообещав довести свои оценки до СМИ позже. Тем не менее, в Южной Корее теперь исходят из того, что летала именно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система и, скорее всего, твердотопливная "Хвасон-18".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КНДР произвела уже пять запусков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ракет, способных поражать США: в феврале - МБР "Хвасон-15", в марте - МБР "Хвасон-17", в апреле, июле и вот теперь в декабре - МБР "Хвасон-18". Есл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эти верны, то выйдет, что это стало третьим и, скорее всего, снова успешным испытанием новой твердотопливной МБР "Хвасон-18", которую, ка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КНДР начнет ставить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е исключено также, что при запуске 18 декабря был использован новый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й ракетный двигатель, об успешных тестах которого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в конце ноября.

В Сеуле отмечают, что хотя пока КНДР не подтвердила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их ракет по части повторного входа в атмосферу, когда требуются особ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боеголовки и системы навед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но в целом признается, что возмож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ных арсеналов растут.

Интересно, что такое "наращивание мускулов" КНДР в этом году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о всех средах - на море, в воздухе и на земле. Помимо уже упомянутых запусков МБ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сообщила о спуске на воду первой субмарины с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а в конце ноября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успешный вывод на орбиту перв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путника-шпиона. Если верить Пхеньяну, то спутник уже начал работу и передает в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фотографии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СШ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НДР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выполняет "пять главных задач сф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бороны", которые были заявлены в январе 2021 года на 8-м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тогда многие зарубе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содержанием этих задач, посчитали, что Пхеньян чрезмерно амбициозен и вряд ли успеет их все достигнуть за пять лет, но события уходящего года начинают убеждать в обратном.

Все это хорошо видят и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в Южной Корее, а также США и Японии. Сеул немедленно осудил очередной запуск МБР КНДР и пообещал, что Юг с союзниками - Вашингтоном и Токио - отреагирует активизацие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нейтрализацию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угрозы Пхеньяна.

Правд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еул и союзники сами не сидели сложа руки и, как считают в той же Южной Корее,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нынешний старт стал реакцией как раз на американ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против КНДР. Так,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в двустороннем и трех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ах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крупные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с участием сил ВМС, ВВС 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где потенциальным противником выступает именно КНДР. Союзники заявили о начал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обмена данными по поводу ракетных старт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еализуют шаги по созданию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ы совместной ПРО.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Способна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в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знала запущенную КНДР ракету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Кроме того, 15 декабря США и РК провели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ядерной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групп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и, как Вашингтон и Сеул будут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озможную атаку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сценари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ного удара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ША по КНДР

Вашингтон и Сеул начнут отрабатывать на практике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этой связи стоит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не только КНДР "провоцирует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о и США, РК и Япония как минимум не отстают по части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их военных мускулов и готовности "отреагировать со всей решительностью и полной мощью имеющегося оружия". В итоге же мож-

но ожидать, что, судя по поведени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спектакля на военную тему", нас ждет дальнейший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учения, визиты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авианосцев и ядерных подлодок к берегам Кореи продолжат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Министр труда России наградил сахалинца

Сахалинец Антон Мамонов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карьер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Он обошел 17 лучших карьерных консультан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За это сахалинец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от министра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нтона Котлякова.

–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с стал масштабнее. Он объединил уже 66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Надеюсь, что в будущем география эт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стязания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 отметил федеральный министр.

Антон Мамонов работает в кадров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ньше двух лет и уже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как неравнодушный и клиентоцентричный специалист. Он проводит профориентацию, помогает составить резюме, готовит кандидата к собеседованию, 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бирае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курсы.

– Думаю, одним из факторов успеха стала моя внутренняя убежденность, что нет трудных клиентов, есть интересные, – поделился Антон Мамонов. – Работа с людьми мне идеально подходит. Я продолжу помогать соискателя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ебя. Ведь именно это главное в моей работе.

Сахалинец – автор уникального для региона проекта «Соискатель глазами работодателя». Это тренинг для безработных граждан, где на практике разыгрываются реальные кейсы собеседований. Эта методика помогает кандидатам обрест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их силах и успешно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 Перечень услуг современных кадровых центров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подбором вакансий и оформлением пособия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Поэтому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стоянно повышают квалификацию и внедряют новые формы работы с соискателями и бизнесом.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клиентоцентричному подходу показатель безработиц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аётся самым низким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ц.

Более 4 тысячи новорожденных прошли в этом году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генет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рактику внедрили расширенный неонатальный скрининг новорожденных. Диагностика позволяет выявлять генет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своевременное лечение которых помога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звитие тяжелых осложнений и инвалидизацию. Благодаря массовому охвату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алось выявить врожденные патологии и начать лечение у 7 детей. Расширенный скрининг внедрен в систему помощи детя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требуется несколько капель крови. Биоматериал забирается из пяточки ребёнка на вторые сутки жизни. Диагностика проводится в медико-генет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 Скрининг несёт массовый характер. Кровь для дальн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ладенца берётся с согласия мамы, все манипуляции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В перечень заболеваний включены наследственные болезни обмена веществ, первичные иммунодефицитные состояния, спинально-мышечная атрофия и другие патологии. Их своевременное обнаружение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обрать правильный курс лечения на раннем сроке,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развитие заболе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ой генетики областног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Элеонора Костырко.

В группу риска за прошедшие 11 месяцев попали 45 детей из 4214. У одного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выявлено и подтверждено серьёзное нейромышечное заболевание – спинально-мышечная атрофия. Ему требуется дорогостоящее лечени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лностью взял на себя фонд «Круг добра», созданный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детям с ред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 Для точнос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всегда берём кровь на два тест-бланка: один остаётся в нашей лаборатории, другой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Москву. При положительном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одится повтор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центре генетики, – добавила Анна Репникова, биолог медико-генет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се дети с выявлен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находятся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та-

ким пациентам требуется пожизненное дорогостоящее лечение.

Свыше двух миллиардов льгот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олучил бизне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действ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бизнесу выдали 85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йма по сниженной ставке, 197 из них – в этом году. Итоги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двели в регионе.

– В этом году я открыла мясной ресторан. Мне оказали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написала бизнес-план, получила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мне помогли с обучением и по сей день консультируют по раз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в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е. Начиная от оформл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подбора помещения и оформления лицензии, заканчивая согласованием вывески, – поделилась основательница проекта «РЯБРО» Ксения Рябова.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развивает стартапы и масштабирует действующие проекты. С начала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ли создать 26 компаний в сфере услуг, туризма, спорта, обра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нженерных изысканий.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над запуском перв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зиплай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Инкубатор входит в структуру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который выступает главным драйвером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области. Здесь по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дело, выбрать режим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пройти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й заём или поручительство перед банками, выйти на мировые рынки. Отдельная работа ведётся по поддержке аграриев: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ают составить бизнес-план и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на грант.

– С начала года клиентами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стали более 4,5 тыся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реди них есть и новые истории. В компании «Маломобиль» людям помогают комфорт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здоровья. Это первый опыт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мы его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ем. Кому-то в этом году удалось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В их числе рекламная-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Красная бород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авел Кононец.

В 2023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самозанятые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лучили 19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ймов на сумму свыше 4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инимальная ставка – 4%. Также бизнесу выдали 169 поручительств по кредитам банков почти на 926 миллионов, что позволило привлечь в компании более 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За пять лет сумма выданных микрозаймов по льготным ставкам составила 2 миллиарда 3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могают информационно: с начала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л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свыше 40 бизнес-мероприятий и 5 выставочно-ярмарочных. Одно из последних прошло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свои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презентовали более 3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Благодаря содействию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18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аний заключил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нтракт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6,5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Помимо этого, 11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экспозиции в Гуанчжоу, ещё 12 – в двух рыбных выставках в китайских городах Фучжоу и Цинда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сельхозкоопер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создано 4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а и 11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ещё 28 сахалинцев вовлечены в коопера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на селе. Клиенты Центра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более 14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виде грантов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Илья Чернобай из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й более пяти лет выращивает столовые корнеплодные и клубнеплодные культуры. В этом году он получил 2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на 1000 тонн и приобретение картофелеуборочного комбай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у над оптимизацией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егодн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нутренние процессы совершенствуют 30 компаний. 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бесплатно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Ещё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 субси-

дии или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по 26 видам. В 2023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направили 200 миллионов, а с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бизнесу компенсировали 1 миллиард 36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другой программе на субсидии дл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или более 4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помогло семи компаниям из отраслей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ранспорта и добычи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Для помощи в подбор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регионе заработала АНО «Сахалин – остров возможностей».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ут поиск кандида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водят первичные собеседования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рганизуют их переезд.

Сегодня кур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у местных брендов.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станет единый товарный знак для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создаваемых на островах.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твердившие качество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ндартам сервиса, с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ддержку региона.

Помощь бизнесу доступна благод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 пять лет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сахалинцы смогли расшир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высить узнаваемость, нарастить объёмы продаж. Подробнее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mybusiness65.ru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8 800 222 0123.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расширяет спектр обследований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обновили парк оборудования. Два новых аппарата – ангиографических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ьютерных томографов – позволяют проводить точнейшую диагностику заболеваний глаз.

Снимки,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на новом КТ, имеют наивысший уровень качества 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метить мельчайшие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на обширном участке – от роговицы до сетчатки зрительного нерва.

За первый день диагностики врачи проверили зрение у 50 паци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их докторов консультировал инженер по клиническим испытаниям из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центра Москвы.

– Качество диагностики скажется и на уровне проводимых операций, потому что от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зависит выбор тактики лечения и последующей реабилитации. За три дня мес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т функции аппаратов, узнают больше об их возможностях. После они буд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читать результаты и практиковаться в скорости постановки диагноза. Это долгий процесс, но врачи замотивированы и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ы, они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ют медицинские форумы и следят за тенденциями в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ой сфере,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по клиническим испытаниям компании-поставщика Алексей Фомин.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тупило в раз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больницы – стационарное отделение и консультативную поликлинику. Приобретение техники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борьбе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 это заболевание часто приводит к заболеваниям глаз.

– Мы регулярно обновляем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сширяем перечень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услуг.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иобрели А/В-скан для УЗИ-диагностик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олочек глаза. Он позволяет оценить состояние хрусталика и за 20 минут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ое заключение с описанием состояния глазных структур. На подходе у нас аппарат «Биометр», который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роговицы и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в лечении, но и подборе линз. Также скоро появится эндотелиальный микроскоп –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н способен проводить подсчёт эндотелия и 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послеоперационные осложн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Наталья Жарская.

Напомним, оператив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при отслойке сетчатки и других патологий глазного яблока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полису ОМС. Комплексные меры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под контроле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 этот год врачи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ровели больше 300 операций. Для планового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специалисту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동포사회-모국 연결에 앞장" 한국 찾은 고려인 기자들의 약속

재외동포청 초청 연수 참가 "우리말·얼 계속 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커지고 취재 노하우도 강화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더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의 '2023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에 참여한 고려인 기자 7명은 연수를 마친 후 출국을 앞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재 등 언론의 최신 동향을 배우고 모국에 대한 소속감이 커진 게 가장 큰 수확"이라며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동포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의 기자 등을 초청해 지난 4~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위탁 연수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디어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과 AI 활용, 최신 취재 기법, 스트레이트 기사쓰기 등 실무를 배우고 저널리즘 등 이론 교육을 받았다.

울산 산업현장을 탐방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문화 체험에도 나섰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를 견학한 후 재외동포 담당 기자들과 동포사회 취재 노하우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함께 했다.

러시아 국회를 출입하는 스페틀라나 티안·박 예브게니 기자는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워 큰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한국 언론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100년을 맞은 카자흐스탄 고려일보의 이 발레리아·남 나탈리아·김 알렉산드라 기자는 "신문박물관에서 초창기 고려일보 발행 판을 보관하고 있어서 감격스러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말과 얼을 전해온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를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후배 언론인이 되도록 노력할



연합뉴스·연합TV 견학한 재외동포 언론인들 재외동포청 초청 연수에 참가한 고려인 기자 등 언론인들은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를 견학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것"이라고 했다.

사할린 새고려신문의 배순신 발행인 겸 편집장은 "각국의 동포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며 "모국이 동포언론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주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일치신문의 김유리 기자는 "보이는 현상 이면도 취재하고 무엇보다도 취재 소스가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는 풍토가 크게 와 닿았다"며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 시간"이라며 뿌듯해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재외동포 언론은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심점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말로 깨닫다]

할아버지는 바보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은 심각합니다. 할아버지를 바보, 천치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를 어리석다고 나무라는 경우도 거의 없겠죠. 그건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머니에게 천치라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바보나 천치와 같은 말은 심각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나이를 먹으면 점점 깜빡깜빡합니다.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으레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해지면 병이 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치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능·의지·기억 따위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나 치매에 걸리다가 연관어로 나옵니다.

나이를 먹으며 가장 두려운 병은 치매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두렵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내가 한 일, 저지른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건망증하고는 다르기에 치료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매의 치료가 멀지 않았다는 뉴스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뉴스가 나오면 눈이 갑니다.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비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예방책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로 저렇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치매는 사실상 차별어이고, 심하게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지요.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 저는 좀 괴로웠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치매(癡呆)'의 한자를 찾아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치매의 한자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놀라고 싶으시다면 이쯤에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더니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치매의 치(癡)는 어리석다는 뜻이고 심하게는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천치(天癡), 백치(白癡)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매(呆) 역시 어리석다는 뜻이고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라는 말은 병에 걸린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차별어이고, 차별을 넘어서는 모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피해야 하는 말이죠. 일본어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꾸었습니다. 인지에 문제가 생긴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적당한 표현으로 바꾸어 부르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온 한숨이 나오는 병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치, 백치로 부르는 것은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한편 한자 치를 살펴보면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치는 의심이 많아지는 병이라는 생각이 글자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글자모양이 병과 의심이 합쳐져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무조건 의심을 하다보면 스스로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결국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치를 간단히 쓸 때는 알 '지(知)' 자 들어간 치(痴)를 씁니다.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병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여타의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아이로 되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언어가 차별이나 모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차별과 모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에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시범 운영

LA·상하이·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공관에 우선 설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할 때 비대면으로 민원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2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각 1대씩 설치했다.

재외동포청은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재외공관 행정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관할 부서인 종로구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2월 12일 '재외공관 시범운영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후에도 재외동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진 재외동포청)

완도군 '수출 농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하늘소법인 김세운 대표 최고 품질 쌀, 들녘 사업 성과 인정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 농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남 대표로 선발된 하늘소법인 김세운 대표가 최고 품질 쌀 육성 및 수출, 들녘 공동체 사업 가루 쌀 재배 등 정부 시책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수출 농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농업인, 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7개 시·군이 본선에 올랐다.

완도군의 김세운 대표는 최고 품질 쌀 계약 재배 및 수출단지 사업에 참여해 완

도 쌀을 수출하는 생산단지 역할을 담당했고, 가루 쌀 사업, 우리 밀 계약 재배, 들녘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게 됐다.

하늘소법인 김세운 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완도농업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 "완도농업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18년 군 브랜드 쌀인 '자연그대로미'를 말레이시아(12t)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에 미국(8t), 2020년에는 러시아(157t) 등 현재까지 13회, 총 177t을 수출했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주에는 2022년부터 10년간 1000t(약 30억 규모)을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쌀 이외에도 비파 와인과 유자 젤리 스틱, 색깔보리 커피, 전복 비파 음료 등 6종의 농산 가공품이 지난 11월 중국 수출길에 올랐고, 향후 5년간 200억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경제)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декабре темой новогодней экспозиции стала «Твоя яркая з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ется метание тынзяна на хоре — игр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А любителе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привлекает интерактив «Поймай ко-рюшку».

Напомним,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форум «Россия» открылась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4 ноябр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Дня космонавтики, 12 апреля. Она проходит в Москв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ыставки достижений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ДНХ). Указ о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Цель — демонстрация важнейших достижений регионов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개와 고양이' 보호소 창립일 기념

지난 12월 16일(토) '개와 고양이' 보호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애완동물들에 관심을 가진 수백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행사에 방문했다. 애완동물 보호소의 소장 이리나 사비츠키야는 창립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부분을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창립 17주년을 맞았습니다. 17년 전에 그때 집 없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집 없는 동물들이 단순히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여러분과 여생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개와 고양이' 보호소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사비츠키야 소장이 말했다.

이날 방문자들을 위해 상품을 건 주제별 경연이 열렸고,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수께끼로 묘사하는 모든 보호 동물들의 이름을 맞히며, 사진으로 동물의 이름을 맞히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이후 케이크와 차, 초콜릿 캔디와 샴페인

마련된 축하 연회가 열리고, 방문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동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방문자들은 비타민 고양이와 아름다운 고양이들과 만남이 이뤄지는, 인기있는 고양이 방을 찾아갔다. 기념식 후 보호소의 모든 복도에는 방문한 주민들의 관심어린 선물들, 동물 사료, 동물 침구, 동물들의 거주 기능을 위한 필요한 물건들과 그외 것들로 장식됐다.

기념일은 좋은 음악과 함께 마무리되며 동물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만족스러워 했다.

Приют «Пес и Ко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 день рождения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6 декабря, в приюте «Пес и Кот» праздновали 17-летие со дня его основания. Посетить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пришли более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м небезразлична судьба братьев наших меньших.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июта Ирина Савицкая обратилась ко все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и причастным к празднику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отдает часть вашей большой жизни на помощь животным!... Нам 17 лет, животные бездомные были и тогда, 17 лет назад, есть они и сейчас, но я хочу пожелать нам всем, чтобы мы с вами дожили до того дня, когда бездомных животных просто не будет.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мой любимый «Пес и Кот»!», — произнесла Савицкая.

Для гостей подготови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конкурсы с призами.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не составило труда назвать по именам всех подопечных, которых описывали в загадках волонтеры и узнать пушистиком по фотографиям. А после был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с тортами, чаем, конфетами и шампанским.

Несмотря на мороз,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провели много времени с собаками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Еще одним популярным местом посещения стали комнаты кошек — та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местной знаменитостью — котом Витамином и другими не менее прекрасными пушистиком.

После праздника весь коридор организации украсили подарки неравнодушных островитян: корма, наполнител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риюта вещи и другое.

Праздник завершился на хорошей ноте — счастливыми остались и животные, и волонтеры приюта.

2명의 사할린 주민, 보이스포싱범의 '안전계좌'로 650만 루블리 이체

사할린 내무국의 보고에 따르면 사할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 주민이 보이스포싱범이 지시한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설득해 보이스포싱범에게 약 650만 루블리를 내주었다고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50세 피해여성의 경우 익명의 사람이 전화하자 이 여성은 그의 지시에 따라 69만 루블리를 찾고, 5백만 루블리를 대출을 받아 보이스포싱범이 제시한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와 유사하게 코르사코브의 주민도 당한 가운데 경찰을 사칭한 익명의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아 80만 루블리를 송금했다. 경찰은 이 범죄사건을 기소해 조사 중이다.

Дво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еревели на «безопасные счета» мошенников почти 6,5 млн руб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Корсакова отдали мошенникам около 6,5 млн рублей. Аферисты убедили их перевести деньги на «безопасные счет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го УМВД.

Одной из потерпевших оказалась 50-летняя южносахалинка. Ей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по указанию которого она обналичила сбережения в сумме 690 тысяч рублей, а также взяла несколько кредитов на 5 млн рублей. Затем она перевела все деньги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На такую же уловку попался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После разговора с лже-полицейским он перечислил аферистам 800 тысяч рублей, оформленных в кредит. По фактам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